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14

▶ **15회 예고**
강가강 들판에서 코끼리경주대회가 열린다. 빠딸리뿌뜨라 성민과 왕자 대표가 참가하는 대회였다. 수시마가 출전한다. 열다섯 살의 아쇼까도 갑자기 성민 대표를 대신해서 출전한다. 그런데 아쇼까는 수시마에게 1등을 양보한다.



아쇼까 스승, 빠딸리뿌뜨라성 떠나다

궁중정원 살라나무 숲에는 깃이 노란 노랑할미새가 많았다. 노랑할미새들은 살라나무 숲속에서 부지런히 풀씨 같은 먹이를 쪼아 먹으며 날아다녔다. 살라나무 숲속에 목갈리뿟다띳사가 나타나면 그의 어깨에 노랑할미새가 앉기도 했다. 어떤 날은 산비둘기가 목갈리뿟다띳사 앞에서 길을 안내하듯 종종거렸다. 어린 아쇼까는 이상했다.

'새들이 왜 나에게는 날아오지 않는 거야?'

그날도 목갈리뿟다띳사는 노랑할미새가 자신의 어깨에 앉았는지 모르는 듯 느릿느릿 걷기만 했다. 눈을 지그시 뜬 채 자신의 발을 응시할 뿐이었다. 어린 아쇼까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잰걸음으로 뒤따라갔다. 숲속으로 들어갈수록 새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윽고 목갈리뿟다띳사가 살라나무 숲속 그늘에 앉으며 품속에서 책을 꺼냈다. 산스끄리뜨어 왕자용 교본이었다. 목갈리뿟다띳사가 직접 쓴 왕자용 교본이 아니라 궁중에 전해 내려오는 손바닥만 한 작은 책이었다. 아쇼까가 참지 못하고 말했다.

"이곳에는 새들이 왜 많아요?"

"소승이 오니까 그렇습니다."

"맞아요. 제가 왔을 때는 새들이 도망쳐버렸어요."

"새들하고 친하게 지내보세요. 소승처럼 여기 올 때마다 이렇게 모이를 주면 새들이 반가워하겠지요."

목갈리뿟다띳사가 호주머니 속에 든 모이를 꺼내 반반한 바위 위에 놓아주었다. 그러자 새들이 몰려왔다. 까마귀부터 산비둘기, 꾀꼬리, 노랑할미새, 참새 순으로 날아와 모이를 순식간에 쪼아먹었다. 그런 뒤 숲속으로 날아갔다. 아주 멀리 날아가지 않고 목갈리뿟다띳사에게 보답이라도 하듯 부근 숲속에서 맑은 소리로 합창을 했다.

"왕자님과 날마다 배우고 있는 산스끄리뜨어도 저 새소리만큼 아름답지요? 아마도 산스끄리뜨어만큼 아름다운 소리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산스끄리뜨어가 새소리 같아요."

"새소리도 그렇고 자연의 모든 소리는 성스럽지요. 따라서 자연의 소리를 내는 산스끄리뜨어도 성스러운 것입니다. 성스러운 언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더욱 흥미를 느끼실 것입니다."

목갈리뿟다띳사는 산스끄리뜨어가 성스럽다고 강조하곤 했다. 그러나 아쇼까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다. 자신이 새들을 다스리는 왕자가 되고 싶었다. 숲속으로 들어왔을 때 자신에게도 새들이 날아오기를 바랐다.

다음날. 아쇼까는 목갈리뿟다띳사보다 먼저 살라나무 숲속으로 와서 반반한 바위 위에 모이를 놓았다. 그런 뒤 살라나무 뒤에 숨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까마귀가 날아와 작은 새들을 깍깍깍 소리치면서 쫓아냈다. 그렇다고 모이를 다 먹는 것은 아니었다. 작은 새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했다. 독수리도 가까이 가지 못했다. 아쇼까는 왕자 별궁으로 돌아와 수시마 이복형에게 가서 새총을 빌렸다. 수시마는 새총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아쇼까는 목갈리뿟다띳사가 숲속으로 오기 전에 까마귀를 잡으려고 했다. 새총은 대나무로 만든 것이었다. 새총을 입에 대고 훅 입바람을 불면 작은 화살이 날아가 새를 맞추었다. 그런데 아쇼까는 수시마처럼 새를 잡지 못했다. 입바람이 약해서 화살이 까마귀에게까지 날아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떨어지곤 했다.

아쇼까의 모습을 발견한 목갈리뿟다띳사는 적잖이 실망했다. 어느 해인가 애벌레를 죽이는 아쇼까를 보았을 때보다 더 낙심했다. 살생하지 말라고 자주 가르쳤지만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아쇼까의 습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왕자님, 오늘은 산스끄리뜨어 수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새총은 살생의 도구입니다. 그러니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악업이 됩니다."

"작은 새들이 까마귀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새들을 위해 까마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무엇이 잘못입니까?"

"까마귀도 작은 새도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살생하면 반드시 언젠가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생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백성을 위하듯 저는 이 숲속에서 사는 작은 새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목갈리뿟다띳사는 아쇼까를 가르치는 데 한계를 절감했다. 아버지 빈두사라를 닮겠다는 아쇼까가 고집을 꺾지 않아서였다. 이후 목갈리뿟다띳사는 아쇼까를 가르칠지 말지 고민했다. 아이답지 않은 아쇼까의 행동은 빈두사라를 실망시킬지도 몰랐다. 빈두사라가 목갈리뿟다띳사에게 아쇼까를 맡긴 까닭도 여러 종교를 체험하게 하여 세상 보는 눈을 키워주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마침내 목갈리뿟다띳사는 단순히 산스끄리뜨어와 수학만 가르친다면 굳이 자신이 아쇼까를 맡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건기인데도 갑자기 비가 내리다가 멎은 어느 날이었다. 말라가던 정원의 푸나무 잎들이 생기를 되찾은 듯 번들거렸다. 다르마 왕비 별궁으로 가는 샛길도 빗방울에 젖어 촉촉했다. 목갈리뿟다띳사는 다르마 왕비를 찾아갔다. 락슈미띳사가 멀리서 오는 목갈리뿟다띳사를 발견하고는 정원 앞까지 달려와 맞이했다.

"사문이시여, 웬일이십니까?"

"왕비님을 뵈러 왔소."

"지금은 안 됩니다. 대왕님께서 별궁에 와 계십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왔으니 밖에서 기다리겠소."

그때 아쇼까가 목갈리뿟다띳사를 보고는 달려와 인사했다.

"산스끄리뜨어를 가르쳐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라다굽따 제관님과 함께 강가강에서 목욕하고 산스끄리뜨어로 기도했어요."

"산스끄리뜨어 자모를 모두 다 외우고 쓸 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하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목욕하는 것이 더 없이 좋아요. 목욕을 하면 그동안 제가 지은 죄가 다 없어진대요. 라다굽따 제관님이 그랬어요."

목갈리뿟다띳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강물에 목욕하면 지은 죄가 없어진다고 하는 라다굽따의 말은 브라흐민들의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몸에서 죄가 없어진다는 말은 해탈한다는 뜻이나 같았다. 강물에 몸을 적셔서 해탈한다고 하면 강물에 사는 거북이나 물고기들이 먼저 해탈해야 할 것이었다. 있을 수 없는 궤변이었다. 아쇼까가 별궁으로 가버린 뒤 락슈미띳사가 물었다.

"사문이시여, 왜 그러고 계십니까?"

"나는 아쇼까를 더 이상 어쩌지 못하겠소."

"이곳을 떠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소."

아쇼까가 다르마 왕비에게 알린 듯 궁녀 한 명이 종종걸음으로 왔다. 락슈미띳사를 밤낮으로 보조하는 어린 궁녀였다.

"왕비님께서 접견실로 들어오시라고 합니다."

"대왕님도 계신가?"

"함께 계십니다."

목갈리뿟다띳사는 어린 궁녀의 안내를 받아 접견실로 들어갔다. 예전에도 들어가 본 적이 있었으므로 접견실이 낯설지는 않았다. 빈두사라는 그때나 지금이나 중앙 맞은편 큰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다르마 왕비는 아쇼까와 함께 좌측 의자 앞에 서 있다가 목갈리뿟다띳사를 맞이했다. 빈두사라가 말했다.

"아쇼까의 산스끄리뜨어 실력을 시험해 봤는데 제법이요. 사문이 힘써 수고했기 때문이오. 고맙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옵니다. 지나놓고 보니 사문이 한 일이란 왕자님께 이러쿵저러쿵 지적하고 간섭하는 것뿐이었사옵니다."

"왕자의 선생이니 당연한 일이오."

다르마가 목갈리뿟다띳사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 말했다.

"사문이시여, 아쇼까가 잘못하면 지적하고 간섭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그제야 빈두사라가 아쇼까를 부르면서 정색을 했다.

"아쇼까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솔직히 말해보거라."

아쇼까는 당돌한 성격대로 마치 아버지 빈두사라에게 하소연하듯 말했다.

"살라나무 숲속에서 공부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숲속 새들에게 모이를 준 적이 있는데 그때 힘센 까마귀가 날아와 작은 새들을 쫓았습니다. 까마귀는 작은 새들하고 모이를 나눠먹지 않고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마 형님에게 새총을 빌려와 까마귀를 쫓았습니다. 아버지께서도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벌하지 않사옵니까?"

"네 말도 일리는 있다만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사문께서는 새총을 쏘아 까마귀를 쫓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사옵니다."

빈두사라는 웃었다. 그러나 다르마는 울상을 지으며 쩔쩔맸다. 다르마가 말했다.

"아쇼까야, 새총을 쏘아 까마귀가 죽으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예전에 네가 애벌레를 죽일 때도 사문께서는 몹시 걱정하셨단다.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란다."

"어머니, 저는 살아 있는 작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그랬어요."

아쇼까는 빈두사라가 있어 그런지 아이답지 않게 거침없이 말했다. 아쇼까의 말을 웃으며 듣던 빈두사라가 목갈리뿟다띳사에게 물었다.

"아쇼까의 말이 틀렸다면 말해보시오."

"대왕이시여. 살생은 정당화되지 않사옵니다. 살생을 하면 반드시 과보를 받사옵니다. 그래서 살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따마 붓다의 가르침이옵니다."

"다른 나라가 침략해 왔을 때 우리 백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살생하는 것도 과보를 받는단 말이오?"

"그렇사옵니다."

빈두사라가 어이없다는 듯 입을 다물었다. 목갈리뿟다띳사를 존경하는 다르마만이 안절부절못했다.

"아쇼까야, 너를 위해 궁에 들어온 사문을 믿고 따라야지, 네 생각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어머니, 저는 라다굽따 제관님이 좋아요. 강가강에서 목욕하면 제가 애벌레를 죽인 죄도 다 없어진다고 했어요."

이윽고 빈두사라가 말했다.

"사문의 말도 옳고 네 말도 옳다."

그러나 빈두사라는 마음속으로 어린 아들이지만 아쇼까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벌써부터 어른들의 세계를 엿보고 있기 때문이었다. 빈두사라가 목갈리뿟다띳사를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사문의 의견을 존중함에는 변함이 없소."

목갈리뿟다띳사가 눈을 감은 채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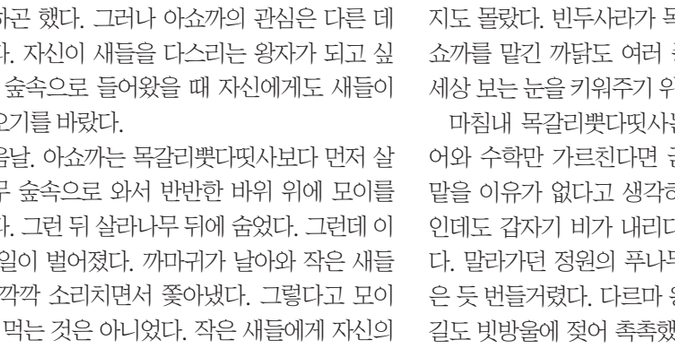
"대왕이시여, 왕자님과 소승과의 인연은 여기까지이옵니다. 고따마 붓다의 가르침을 외면할 수 없으니 소승은 궁을 떠나겠사옵니다. 허락해주시옵소서."

"사문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방금 말했으니 달리 방도가 없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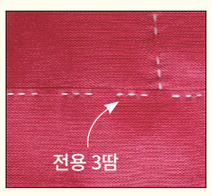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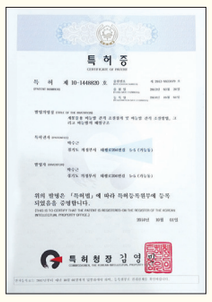
빈두사라는 만류하고 싶었지만 왕의 체통을 생각해서 참았다. 벌써부터 선생을 내치는 아쇼까가 웃자라는 것 같아 놀라울 뿐이었다. 다르마 왕비만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소연했다.

"사문이시여, 저는 아쇼까를 자비로운 왕자로 키우고 싶습니다. 궁에 남기를 청하니 한 번 더 생각해주십시오. 제 꿈은 오직 아쇼까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문께서는 아쇼까를 맡아 주십시오."

그러나 고따마 붓다의 가르침을 생명처럼 수행해온 목갈리뿟다띳사는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았다. 그날밤 빠딸리뿌뜨라 내성의 보리수 아래서 하룻밤을 묵고는 자신의 원래 수행처인 베살리 산속으로 돌아가버렸다. 〈계속〉

침향 향기나는 초 **침향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식물성 침향초 연꽃칠성촛대 연꽃촛대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연꽃 크리스탈 촛대
양초 보시 대행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

만복승복(가사)
특허권자가 승복을 지으면 뭔가 다릅니다!!
본 승복사는 가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업체입니다. 가사를 어떻게 하면 더 좋고 더 멋있는 가사를 지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업체입니다. 만복사(승복사)는 미싱 가사가 아닌 수가사식으로 지은 전통 3땀 가사이오며, 타 업체 가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가사의 가로, 세로의 크기가 거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 놓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땀 가사로 발명특허까지 출원하여 많은 스님들께서 좋아하십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전용 3땀

특허증
만복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의정부시 의정부동 160번지 라동 23호(제일시장 내)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킴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www.garden-heating.com 문의 010-3267-1263